

2022월드컵 2차예선 北 원정 여부 8월초 윤곽

AFC, 이달까지 홈경기 계획서 요청

한국 축구국가대표팀의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예선 북한 원정 성사 여부가 이르면 8월 초에 공개될 전망이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23일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카타르월드컵 2차 예선에 출전하는 각국 축구협회에 홈경기 계획서를 이달 말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올해 10월로 예정된 북한 원정 경기가 어디서 펼쳐질지 빠르면 8월 초에 파악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국과 북한은 카타르월드컵 2차 예선 H조에 함께 배정돼 홈&어웨이로 2차례 맞대결을 펼쳐야 한다. 현재 공개된 일정으로는 한국이 10월 15일 북한으로 원정을 떠난다. 내년 6월 4일에는 한국이 북한을 홈으로 불러들인다.

월드컵 2차 예선은 2023 AFC 아시안컵 예선을 겸해 진행된다. 각 조 1위 8팀과 2위 중 성적이 좋은 4팀 등 12팀이 월드컵 최종 예선과 아시안컵 본선 진출권을 획득하는 만큼 매 경기가 치열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번에는 홈에서 한국과의 경기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하지만 남북이 격돌하는 스포츠이벤트는 정치 상황이 경기 장소가 결정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왔다는 점에서 성사 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과 북한은 2010남아공월드컵 3차 예선과 최종 예선에서 잇따라 대결을 펼쳤다. 당시 한국을 상대로 한 북한의 홈경기는 중립지역인 중국 상하이에서 열렸다.

최용석 기자

경남, 부상당한 공격수 네게바와 결별

경남FC가 외인 공격수 네게바(브라질)와 결별했다. 경남은 팀의 주축 공격수로 활약해 온 네게바와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 했다고 23일 밝혔다. 2018시즌을 앞두고 경남과 인연을 맺은 네게바는 지난해 말경(허베이)과 함께 팀의 공격을 이끌면서 K리그1(1부리그)에서 '경남 돌풍'의 핵심멤버로 활약했다. '하나원큐 K리그1 2019'에서도 시즌 초반 팀 주축 공격수로 활약한 그는 5월 29일 상주 상무와의 원정 경기에서 십자인대파열 및 연골이 손상되는 큰 부상을 당했다. 네게바는 브라질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올 시즌 복귀는 어려운 상황이다. 경남은 네게바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고심 끝에 계약해지를 결정했다. 구단 관계자는 "반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렵게 내린 현실적인 결정이다. 그동안 수고한 네게바 선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남은 네게바의 자리를 대신할 새 외국인선수를 영입해 전력 보강에 나설 예정이다.

상하이 선화 이적하자마자 3경기 연속골…중국을 놀라게 한 ‘슈퍼 코리안’ 김신욱

“중국서 살아남은 첫 번째 아시안 킬러 될것”

유럽스타 대신 자신을 택한 스승에 경기마다 천금 골로 확실하게 보답 선화 최근 2연승…강등권 탈출 시동 김신욱 “더 많은 골로 동료들에 헌신”

“더 좋은 외국인 선수가 아니라서 오히려 미안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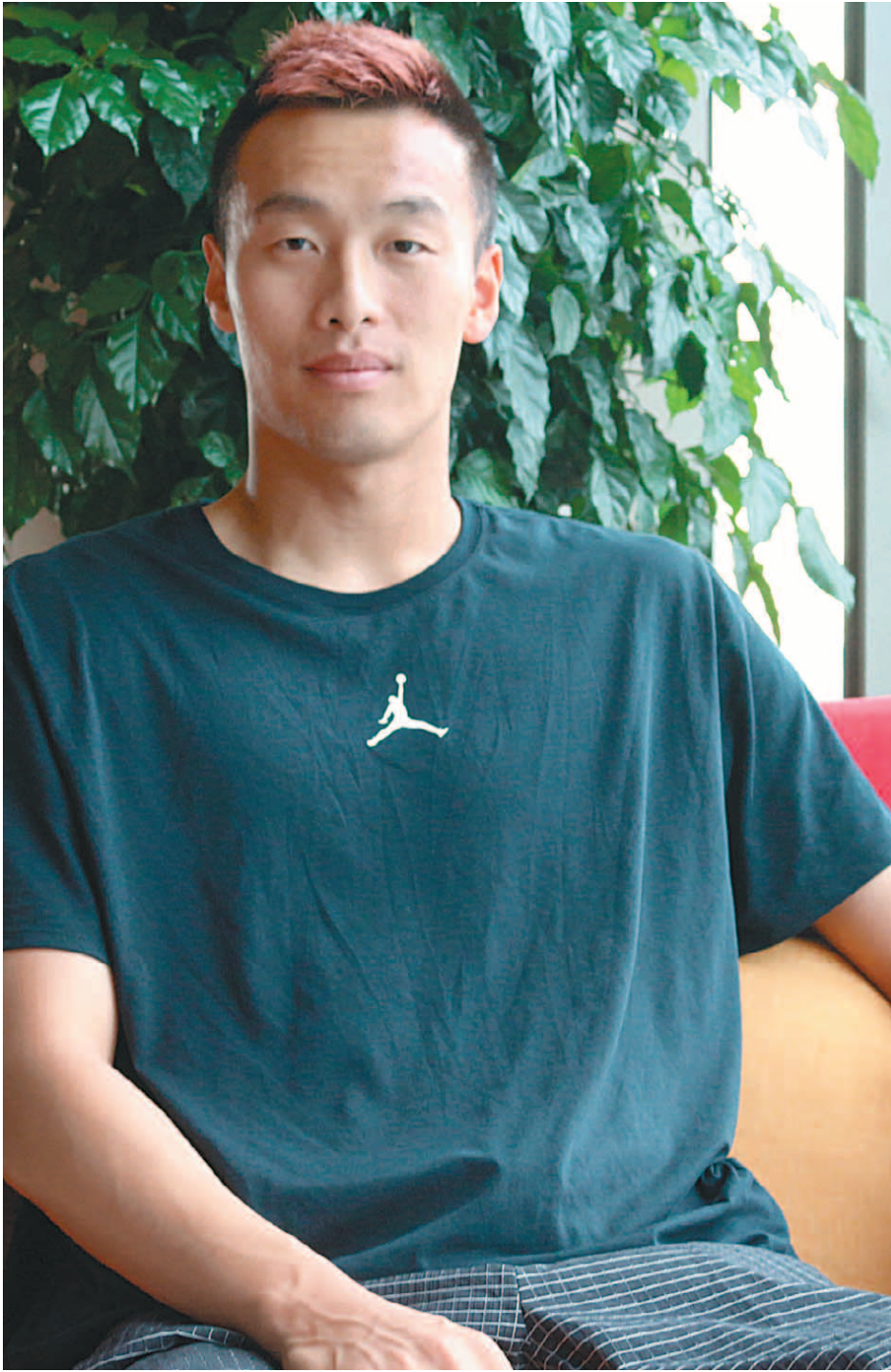
중국 슈퍼리그 명문 상하이 선화에서 새로운 축구인생을 개척하고 있는 스트라이커 김신욱(31)에게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니 돌아온 답이다. 최근 상하이 현지에서 만난 그는 언제나 그랬듯이 자세를 낮췄다. 자신이 가레스 베일(웨일스·레알 마드리드)이나 파울리뉴(브라질·광저우 에버그란데)가 되지 못해 “동료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그래도 굳이 안타까워하고 미안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K리그1 ‘최강’ 전북 현대에서 뛰다 이적료 600만 달러(약 70억 원)에 상하이 선화 유니폼을 입은 김신욱은 충분히 실력을 뽐내고 있다. 김신욱은 21일 베이징 핑타이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베이징 런허와 정규리그 1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전반 45분 만에 첫 골을 뽑아 팀의 4-1 패승을 이끄는 등 한껏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중국 현지 언론의 찬사도 이어지고 있다.

●신뢰를 실력으로 갚다

팀에 합류한 뒤 치른 3경기에서 전부 골 맛을 본 김신욱의 활약 속에 상하이 선화는 최근 2연승과 함께 시즌 5승째(3무11패·승점 18)를 거두며 12위까지 도약했다.

뒷 얘기 하나. 전북에서 김신욱과 한술밥을 먹었던 최강희 감독은 부임 직후 구단으로부터 중대한 선택을 부여받았다. 상하이 선화는 유럽 최고의 클럽에서 활약한 슈퍼스타 A의 영입에 근접한



김신욱은 상하이 선화 이적 직후 3경기 연속 골을 터뜨리며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최근 상하이의 한 호텔에서 스포츠동아와 만난 김신욱은 처음 경험하는 외국인선수로서의 생활, 이에 따르는 기대와 부담감 등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냈다. 상하이(중국) | 남정현 기자

상태였다. 여름이적시장에서 팀이 사용할 수 있는 외국인 영입카드에는 두 장. 엘사라위(이탈리아)와 계약이 마무리된 가

운데 최 감독은 A와 김신욱 중 하나를 택해야 했다.

그러나 최 감독의 생각은 분명했다.

“내가 잘 아는 선수가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구단을 설득했고 그렇게 김신욱의 이적이 추진됐다. 결국 스승의 믿음이 결과로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

●낮선 강등권 다툼

김신욱은 또 다른 싸움도 하고 있다. 울산 현대~전북 시절과는 전혀 다른 상황과 전쟁을 하고 있다. 항상 정상권에 있던 그는 하위권이 익숙하지 않다. “강등권 다툼은 생각도 못한 일이다. 정말 압박이 심하다”고 고백했다. 공격도 하고, 허약한 수비에도 깊숙이 개입하는 등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비는 배경이다. 전북에서의 활동량이 10km 초반이었다면 지금은 12km에 육박한다.

김신욱은 말했다. “난 축구를 더 잘해야 한다. 지금의 팀에서 공격 포인트를 계속 올려야 한다. 아니, 골을 넣어야 한다. 여기에 동료들에게는 ‘헌신’과 ‘희생’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공을 잘 차는 선수는 많아도 정말 헌신하는 선수는 적을 수 있다. 팀 정신이다. 한국선수 가 해외에서 인정받는 비결을 조금이나마 공유하려 한다.” 그의 진심이 담겨있었다.

●멈춤 없는 도전

당연히 안주할 생각도 없다. K리그에서 도움 부문을 제외하면 모든 상을 빠짐없이 받은 김신욱의 개인 목표는 하나다. 중국에서 한 번도 살아남은 적 없는 아시아 공격수, 그것도 전혀 없는 한국 스트라이커로서 가치를 제대로 증명하는 일이다.

“나이 31세의 한국 공격수가 어떻게 유럽으로 가겠나? 팬들은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내게 중국은 도전이다. 선수로서, 인간으로서 계속 자라야 한다. 내 인생에 (상하이 선화에서 보낸) 2년 반은 성장의 마지막 기회다.”

상하이(중국)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선두탈환 노리는 울산, 관전은 ‘미드필드’

오늘 맞붙는 상주 MF진 수준급
김보경·믹스 ‘중원싸움’ 승부수

울산 현대는 24일 울산종합운동장에서 '하나원큐 K리그1 2019' 상주 상무와 홈경기를 갖는다. 당초 이 경기는 지난달 22일 벌어질 예정이었지만 울산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오르면서 연기를 요청해 이번에 치러지게 됐다. 리그 선두 전북 현대(승점 48)보다 한 경기를 덜 소화한 2위 울산(승점 47)은 상주를 꺾으면 1위를 탈환한다.

21일 강원FC를 상대로 쉽지 않은 경기 끝에 2-1로 승리한 울산은 이번 경기에 부상자 불투이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력이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주니오는 강원전을 벤치에서 대기하며 체력을 비축했다. 박주호와 김태환은 경고누적으로 강원전을 쉬면서 상주와의 경기를 준비해왔다. 부상에서 복귀한 이근호도 서서히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등 멤버 가운데 한결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울산의 선두 등극의 키는 미드필드진이 가지고 있다. 상주는 선수층이 두껍지 않지만 미드필드진은 수준급 선수들이 배치되



울산 김보경

었다. 21일 대구를 상대로 결승골을 기록한 윤빛가람, 원발이 좋은 김민우 등을 보유했다. 최근 김민우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제외됐지만 대체 자원들이 힘을 내면서 대구FC를 2-0으로 격파하는 힘을 과시했다.

울산이 리그 선두에 등극하기 위해서는 상주와의 미드필드 싸움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 울산은 강원전 전반에 미드필드 지배력을 상실하며 0-1로 끌려가는 등 어려운 경기를 펼쳤다. 후반 시작과 함께 김보경이 교체 투입되면서 중원 장악력을 높여 2-1로 경기를 뒤집는데 성공했다. 미드필드지만 올 시즌 7골·6도움으로 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김보경과 울산과 재계약을 맺은 직후 열린 강원전에서 1골·1도움으로 흥을 낸 믹스의 활약이 중요해 보인다.

최용석 기자 ghyong@donga.com

이재성 프리시즌 골…개막전 기대감 UP

2부 웬즈데이 상대 활발한 경기력
새 감독 체제서 팀 프리킥도 전담

독일 분데스리가2(2부리그) 휴슈타인 킷의 이재성(27)이 프리시즌 경기에서 골을 기록하면서 두 번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재성은 23일(한국시간) 휴슈타인 스타디움에서 끝난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리그) 셰필드 웬즈데이와의 프리시즌 경기에 선발 출전해 80분간 뛰었다. 그는 팀이

1-0으로 앞선 전반 40분 원발 슈트로 추가 득점을 올리면서 골 맛을 봤다.

휴슈타인 킷은 2-0 리드를 지키지 못한 채 후반 3골을 내리 헌납하면서 2-3으로 역전패했지만 이재성의 활약은 빛났다. 초반부터 특유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팀 공격을 이끈 그는 팀 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였다. 후반 35분까지 소화한 그는 교체 직전에는 문전으로 쇄도해 슈팅을 시도하기도 했다. 슈팅이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기민한 움직임이 돋보이는 순간이었다.



휴슈타인 킷 이재성

휴슈타인 킷은 새 시즌을 앞두고 안드레 슈베르트 감독을 새로 맞이했다. 감독이 바뀐 만큼 팀의 틀도 바뀌기 마련이다. 일단 프리시즌 훈련과 경기를 통해 이재성은 슈베르트 감독에게 합격점을 받은 모양새다. 이재성은 팀의 프리킥도 전담하고 있다.

이재성은 지난 시즌 29경기에서 5골을 터뜨리며 팀의 주축 미드필더로 활약, 독일에서의 첫 시즌을 성공적으로 보냈다.

휴슈타인 킷은 오는 27일 잔트허우젠과 새 시즌 개막전이 예정되어 있다. 개막을 눈앞에 두고 나온 이재성의 골은 또 한 번의 성공적인 시즌을 기대케 하고 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